

‘敵’의 존재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김정석 *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김수영 시의 난해성
 - 2. ‘敵’ 과 의식
 - 1) 敵의 존재와 싸움
 - 2) 敵의 의미에 대한 회의
 - 3) 가장 가까운 敵과의 대면
 - 3. <敵(-)>의 분석
 - 1)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서의 敵
 - 2) 인식의 문제로서의 敵
 - 3) 현실의 반성
- III.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견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 작품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이론적인 배경이 하나같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차이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는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 간의 감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품의 분석에는

* 숭실대 인문대 강사

분명 어느 정도 확실성을 담보해 낼 수 있을 만한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서 예술 작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예술인지 아닌지, 혹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서 예술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원론적인 객관성의 문제는 사라져버리게 되고, 힘에 의한 주관적 논리가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학에 있어서도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구조주의다. 구조주의는 주관적인 견해가 함의될 만한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분석에 있어서 과학적인 태도를 흐려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접근은 시도하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마주치게 되는 것이 바로 텍스트 자체의 문제이며, 구조주의는 분석 대상으로 놓여진 바로 그 텍스트 안에서 모든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객관성이 문학 연구의 과학화, 즉 문학과학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¹⁾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문학상의 난해한 요소들이 있다. 왜냐하면, 과학적 지식까지도 나 자신의 특별한 관점 또는 그것 없이는 과학의 상징들마저도 무의미해지고 말게 될 세계에 대한 어떤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²⁾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현상학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상학이라고 하면 의식의 현상학을 말한다. 이때의 의식은 지향적인 의식³⁾이다. 그리고, 지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회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있다는 의미이다. 즉,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의식, 즉 어떤 대상을 향하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의식은 그 자체로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무언가를 향하고 있는 의식만이 있다는 말이다. 흔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들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현상학은 그렇게 대상 자체인 어떤 것을 동시에 표

1) 김준오 외, 『구조주의』, 고려원, 1992, 16면.

2) 메를로 퐁티,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32면.

3) "의식은 언제나 그 무엇에 관한 의식(Bewußtsein von etwas)이며 언제나 그 대상과 하나를 이루고 있다. 의식의 대상에 행해져 있으며, 대상을 지향(志向)함으로써 그의 대상을 언제나 이미 '자체 내에 지닌다'는 의식의 이 기본구조를 후설은 중세 스콜라 철학으로부터 차용한 용어로 지향성(Intentionalität)이라고 부른다." (W. 마르쿠스, 『현상학』, 이길우, 서광사, 23면)

상한다. 그런데 하나의 현상이 직접적으로 명백하다고 말한다고 할 때, 그 현상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명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현상을 의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적 분석에 의하면 대상을 향하고 있는 지향적 의식 작용에서 그 대상이 주어저 있는 방식과 관련⁴⁾해서만 대상들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객관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 현상학의 도움을 얻어 김수영의 시 〈敵(一)〉⁵⁾다루면서 敵이 상징하는 의미 구조를 분석함과 동시에, 敵이 김수영의 지향적 의식작용에서 어떠한 대상으로 주어저 있는지를 연구하려고 한다. 敵을 소재로 한 詩로는 〈하야.....그림자가 없다〉, 〈敵〉, 〈敵(一)〉, 〈敵(二)〉가 있는데, 시인의 대상과 인식간의 관계 즉, 敵에 관한 인식 과정을 한 눈에 보여주는 것이 〈敵(一)〉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가장 나중에 분석하는 것으로 하겠다.

II. 본론

1. 김수영 시의 난해성

김수영의 시를 읽다가 보면 낯설은 문장과 만나게 되는 때가 많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어를 구사⁵⁾하면서도 그 일상어가 일상적인 어법에 맞게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화영은 김수영의 시작품이 전체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없지만, 읽어도 읽어도 난해하고 그 힘의 방향도 색채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⁶⁾고 말한다. 또한 염무웅은 ‘난해시’와 ‘不可解詩’를 구별하려고 하면서 진정한 난해시

4) “지향론은 대상을 정립하지 않는 의식은 없다는 것을 그 근본원리로 삼으며, 또 이 대상이 우리 의식 안에서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밝히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는다. 지향론적 분석은 의식대상이 대상에 언제나 지향하는 의식 안에서 그 대상성을 어떻게 갖게 되는가를 밝힌다. 물체지각에서 나의 의식은 그것의 외부에 독립해 있는 사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이라고 할 때 이 대상들이 이 의식 안에서 대상화되는 과정이 분석된다.”(『현상학』, 박이문, 고려원, 1992, 17면)

5) “내가 써온 시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어뿐이다. 혹은 書籍語와 俗語의 중간쯤 되는 말들이라고 보아야 될 것이다. 고어도 연구해 본 일이 없고, 시조에 대한 취미도 없다. 어느 서구시인이 시어는 15세까지 배운 말이 시어가 될 것이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데, 나의 시어는 어머니한테 배운 말과 산문에서 배운 시사어의 범위 안에 제한되고 있다.”(『시작노트(2)』, 『김수영 전집』, 287면.)

6) 김화영, 「미지의 모험·기타」, 『김수영 전집』, 131면.

를 쓰려고 했던 김수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한다. 논리의 세계를 물고 늘어지면서 현대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풍성한 이미지와 감수성의 세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었을 것⁷⁾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백낙청도 바로 그러한 점으로 인해 김수영이 모더니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⁸⁾고 말한다. 한편, 난해시의 연장선상에서 유종호는 김수영이 시에서 말하는 敵에는 그의 참여정신이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하...그림자가 없다〉는 시를 예로 들면서, 저항과 참여의 시는 무엇보다 먼저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수법으로보다도 민중의 直情언어로 쓰여져야 한다⁹⁾고 말한다. 일단 그 어법이 일상적인 말과는 다르게 난해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현상학적 해석방법에 따르게 되면, 김수영의 시에 드러난 敵에 대한 적절한 규명이 가능해진다.

2. ‘敵’과 의식

1) 敵의 존재와 싸움

우리들의 敵은 늙름하지 않다
우리들의 敵은 카크·다글라스나 리차드·위드마크 모양으로 사나웁지도 않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惡漢이 아니다
그들은 선량하기까지도 하다
그들은 民主主義者를 假裝하고
자기들이 良民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選良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會社員이라고도 하고
電車를 타고 自動車를 타고
料理집엘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웃고 雜談하고
同情하고 眞摯한 얼굴을 하고

7) 염무웅, 「김수영론」, 위의 책, 153면.

8) 백낙청, 「참여시와 민족문제」, 위의 책, 168면.

9) 유종호, 「다채로운 레파토리수영」, 위의 책, 33면.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일도 하고
原稿고 쓰고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있고 海邊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散步도 하고
映畫館에도 가고
愛嬌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들의 곁에 있다

우리들의 戰線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들의 싸움을 이다지도 어려운 것으로 만든다
우리들의 戰線은 당게르크도 놀만디도 延禧高地도 아니다
우리들의 戰線은 地圖冊 속에는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집안 안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職場인 경우도 있고
우리들의 洞裡인 경우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의 모습은 焦土作戰이나
「건 힘의 血鬪」모양으로 활발하지도 않고 보기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거리를 걸을 때도 歡談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土木工事を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울 때도 웃을 때도
땀나물을 먹을 때도
市場에 가서 비린 생선냄새를 맡을 때도
배가 부를 때도 목이 마를 때도
戀愛를 할 때도 졸음이 올 때도 꿈 속에서도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또 깨어나서도...
授業을 할 때도 退勤時에도

사일렌 소리에 時計를 맞출 때도 구두를 닦을 때도.....
우리들의 싸움은 쉬지 않는다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 있다
민주주의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民主主義式으로 싸워야 한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民主主義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 그림자가 없다
하..... 그렇다.....
하..... 그렇지.....
아암 그렇구 말구..... 그렇지 그래.....
응응..... 응..... 뭐?
아 그래..... 그래 그래.

-〈하아.....그림자가 없다〉全文-

이 시는 4.19가 터지기 바로 직전, 1960년 4월 3일에 발표된 시이다. 일반적으로 김수영은 자유를 노래한 시인이라고¹⁰⁾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의 초기 시들을 살펴 보면, 자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곳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초기 시는 자유보다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좌절에서 얻어지는 비애로 인한 절규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비애가 점점 더 커지면서는 자유에 대해서 좀더 직선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게 된다. 그러한 조짐을 보여주는 시가 바로 위의 시이다. 이 시는 굉장히 긴 산문적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계속된 반복으로 인해 읽히는 데 있어서 속도감을 얻을 수 있으며, 반복은 모두 敵에 대한 설명에서 비롯 한 것이다.

「하아 그림자가 없다」에서 敵의 존재는 ‘그들’로 표현되고 있다. 이점으로 미루어 보아 敵은 단일한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敵의 무리는 카크 다글라스나 리처드 워드마크처럼 사나웁지도 않고, 악한이 아니면서 선량하다. 그들은 良民이면서 選良이고, 회사원이기도 한데, 電車를 타고 自動車를 타고 다니며, 料理집엘

10) 대표적으로 김현은 「김수영 전집 별권」의 논문 「自由와 꿈」에서 “김수영의 시적 주제는 자유이다. 그것은 그의 초기 시편에서부터 그가 죽기 직전에 발표한 시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끈질긴 탐구의 대상을 이룬다. 그는 그러나 엘리아르처럼 자유 그것 자체를 그것 자체로 노래하지 않는다. 그는 자유를 시적,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여건들에 대해 노래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가서 술을 마시고 雜談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또 同情을 할 줄도 알고 眞摯한 얼굴을 가진 그들은 바빠 일도 하고, 원고도 쓰며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살고 해변가와 서울에도 살고 있고, 산보를 즐길 줄 알고 영화관에도 가는 애교 있는 사람들, 즉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평범한 존재로 드러나는 敵들은 民主主義者이다. 하지만 시인에게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民主主義者를 假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들을 통해 敵의 정체는 좀더 선명해진다. 敵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바로 우리들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 대립되는 세력으로서의 敵은 ‘우리’자체가 된다.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무리를 敵으로 여긴다는 것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괴리감과 이질감을 느끼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무리를 敵으로 삼는 것은 자기가 자신의 존재를 제거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운명적인 모순의 구도이기도 하다. 어쨌든 敵과 화자의 관계가 확연히 분리되지 않고 뒤섞여 뭉쳐있음으로 해서 적과의 싸움은 어렵기 그지없는 일이 된다. 결국 敵의 정체는 늘 우리들이며, 우리들 가운데 敵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즉 쉽게 분별을 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敵의 구별이 어렵다는 것은 의식의 지향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敵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며, 대상화 작용¹¹⁾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敵에 대한 가치판단이 미루어지는 것이다.

2) 敵의 의미에 대한 회의

더운 날

敵이란 海綿같다

나의 良心과 毒氣를 빨아먹는

문어발같다

吸盤같은 나의 大門의 명패보다도

正體없는 놈

11) “대상화 작용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의미부여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식주체를 위한 그 대상의 대상성을 획득한다. 이 대상화 작용은 다른 모든 종류의 의식 작용의 기반이 된다. 가치판단, 의지, 그리고 감정과 같은 의식 작용은 대상화로 얻어진 대상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의식경험이다.”(박이문, 『현상학』, 고려원, 1992, 19면.)

더운 날

눈이 끼지듯 敵이 끼진다

金海東 — 그놈은 항상 약삭빠른 놈이지만 언제나

部下를 사랑했다

鄭炳一 — 그놈은 內心과 正反對되는 행동만을 해왔고, 그것은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였다

더운 날

敵을 運算하고 있으면

아무데에도 敵은 없고

시금치밭에 앉은 흑나비와 주홍나비 모양으로

나의 過去와 未來가 숨바꼭질만 한다

「敵이 어디에 있느냐?」

「敵은 꼭 있어야 하느냐?」

순사와 땅주인에서부터 過速을 범하는 運轉手에까지

나의 敵은 아직도 늘비하지만

어제의 敵은 없고

더운 날처럼 어제의 敵은 없고

더워진 날처럼 어제의 敵은 없고

-〈敵〉全文-

위의 시에서 敵은 더운 날의 敵이며, '良心과 毒氣를 빨아먹는/문어발갈'은 敵이다. 더운 날은 수분의 소모가 많은 날이다. 따라서 육체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인간으로서 더운 날 마치 흡혈을 당하듯 수분을 빼앗긴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기력을 빼앗기는 일이 된다. 그런데 빼앗기는 것은 수분이 아니라, 良心이며 毒氣이다. 시적 화자가 말하는 양심이란 민주주의자를 가장한 사람들이 사는 시대의 양심이다. 따라서 毒氣로 표현된 것의 의미는 그러한 양심을 절대 굽히지 않으려는 의지와도 같다. 敵이 그런 양심과 독기를 빨아먹는다는 사실은 수분을 빼앗기는 것보다 큰 일이다. 敵의 존재는 그런 착취를 최대한 가

능케 하는 ‘吸盤’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吸盤은 자신의 대문에 걸린 명패처럼 정체(正體)가 없다. 명패라는 것은 사회적 존재의 대외적인 표명이기에, 정체(正體)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구조 안에서 그 존재를 확연히 구분할 수가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위의 시가 〈하아.....그림자가 없다〉와 다른 사실은 敵의 존재가 다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懷疑는 2연을 통해 드러난다. 적으로 대표되는 인물들의 실상을 알고 보면 그들은 敵이 아닌 것이다. 약삭빠른 사람이지만 늘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 내심과 정반대되는 행동만을 해왔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던 사람을 무조건 敵이라고 규정할 수만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연 마지막 행에서 처럼 따지고 보면 敵은 아무 데도 없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3연에 이르러 〈敵이 어디에 있느냐?〉, 〈敵은 꼭 있어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 시인의 의식 속에서 대상으로서의 敵은 의미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수영이 말하고 있는 敵의 존재문제는 의미의 규정에 대한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가장 가까운 敵과의 대면

제일 피곤할 때 敵에 대한다
바위의 아량이다
날이 흐릴 때 정신의 집중이 생긴다
神의 아량이다

그는 四肢의 관절에 힘이 빠져서
특히 무릎하고 大腿骨에 힘이 빠져서
사람들과
특히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련을 解體시킨다

詩는 쨍쨍한 날씨에 晴朗한 들에
歡樂의 개울가에 바늘뚫친 숲에

버려진 우산
忘却의 想起다
聖人은 妻를 敵으로 삼았다
이 韓國에서도 눈이 뒤집힌 사람들
틈에 끼여사는 妻와 妻들을 본다
오 결별의 신호여

李朝時代의 장안에 깔린 개왓장 수만큼
나는 많은 것을 버렸다
그리고 가장 피곤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버린다

흐린 날에는 演劇은 없다
모든게 쉽다
쉬지 않는 것은 妻와 妻들뿐이다
혹은 버림받은 愛人뿐이다
버림받으려는 愛人뿐이다
녕마뿐이다

제일 피곤할 때 敵에 대한다
날이 흐릴 때면 너와 대한다
가장 가까운 敵에 대한다
가장 사랑하는 敵에 대한다
偶然한 싸움에 이겨보려고

- <敵(二)>全文 -

피곤한 상태에서도 시인은 敵을 대하고 있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다. “피곤하지만 아직도 끝끝내 敵과 대면한다”는 능동적인 의미와 “피곤한데도 敵을 대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의미와 “피곤할 때면 어김없이 敵과 대하게 된다”는

필연적인 의미가 그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바위의 아량’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하지만, 느닷없이 ‘바위가 등장하면서 잠시 그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단 순히 말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바위로 대두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쉽사리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관형어미 ‘-의’는 소유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같은’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면 바위 자체가 하나의 비유가 아닌 소재로서 등장해버리기 때문에 시의 의미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바위 같은 아량을 지는 사람은 화자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뜻을 풀어보면, 敵을 대하는 화자는 아량을 가지고 있고, 또 神의 아량 덕분에 세상이 어두울 때에도 정신을 올바르게 추스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神은 바위처럼 비유가 아닌 하나의 절대적인 존재이다. 철저하게 자기로부터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화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확실성을 보증받고 있다는 것은 얼핏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깊이 분석을 해보면, 너무 자신의 내면에만 정신을 집중하다 보면 중국에 가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되고 남는 것은¹²⁾뿐이라는 사실을 화자는 알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화자는 이제 더이상 회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서를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힘이 빠진’ 화자는 지쳐있는 탓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체하기에 이른다. 특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체시킨다. 계속되었던 敵과의 싸움에서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해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지쳐서 그 짐을 풀어버리고 편안해지고자 하는 단순한 자기 보존적 본능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敵은 시인의 외부에 있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인의 의식에 들어오게 되면서 대상으로서의 敵이 아닌 인식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敵이었던 것들도 따지고 보면 사랑하는 것들과 깊이 얽매어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좀처럼 끊어내기가 힘든 어떤 것이다. 따라서 자신과 사랑으로 지독히도 묶여져 있는 敵을 쉽사리 제거할 수 없었던 시인이 지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때 선택한 것이 바로 사랑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이다.

그것을 계기로 시인은 ‘忘却의 想起’로 여기고 있는 詩, 즉 진정 살아있는 시를 쓰고자 하는 것이다. 쟁쟁한 날씨에 청량한 들에 환락의 개울가에 바늘뚫힌 숲에는

12) 懷疑 懷疑는 <敵(-)>에서 주체의 구성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우산이 필요가 없다. 쟁쟁한 날씨, 청량한 들, 환락의 개울가, 바늘뚫힌 숲 같은 현실 속에서 詩는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지만, 망각의 상기¹³⁾처럼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聖인들이 알고 있었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敵이면서 동시에 敵이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은 妻다. ‘눈이 뒤집힌 사람들’ 사이에는 妻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뒤집히게 만드는 것이 妻라는 의미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敵이 되고 만다는 말이다. 그래서, 妻와의 결별은 자신 스스로 敵이 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살아가는 주변에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敵임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대항할 수 없도록 사랑이라는 관계로 시인을 꼭 붙잡고 있다. 그 때문에 시인은 ‘이조시대의 장안에 깔린 개왓장 수만쿰’이나 많은 것을 버려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은 가장 귀중한 것인 詩마저 버린다. 하지만, 妻라고 하는 敵은 모든 것이 쉬는 날에도 쉬지 않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끈질긴 敵이다. 흐린 날, 정신의 집중이 생긴 날, 연극이 없는 날은 모두 같은 의미로 ‘모든 것이 쉬’는 날이다. 시인은 정신이 맑아진 상태에서 시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는 妻로 인해 피곤해 있는 것이다. 위대한 聖인은 이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이 가장 자신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妻를 적으로 삼았듯이, 敵에 대항하기 위해 많은 것을 버려야 했던 시인은 이제 자신의 妻와도 결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반성을 위한 필요한 일종의 거리두기¹⁴⁾다. 거리를 둠으로써 반성을 위한 대상의 객관화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 혼란스러운 주관적 감정의 개입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연을 보면 시인은 ‘제일 피곤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끈질긴 敵을 대하고 있다. 그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妻를 대하는 바위같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흐린 날이지만 신의 아량으로 그나마 정신의 집중이 생겨있다. 시인은

13) 플라톤에 의하면 얇이란 바로 망각의 상기이다. 그의 상기설에 의하면 위 시의 성인에 관한 언급이 쉽게 풀린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영혼의 불멸을 주장한다. 그래서 지식이란 새롭게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인간의 육체에 들어오게 되면서 잠시 잊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14) ‘반성이라는 것은 사유하는 주체의 자기관계이다. 반성은 이때 거리두기다. ...반성적 거리두기, 그 외면화는 내면화의 전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반성은 가까이 두기 위해서 멀리 둔다. 자기화하기 위해서 타자화하며, 내재화하기 위해서 외재화한다.’(김상환,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민음사, 2000, 75면.)

‘우연한 싸움에 이겨보려’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시인은 이제 더이상 생각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敵>이라는 시에서 말했듯이 敵과의 싸움은 연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만 하다가, 생각만 하다가는 영원히 敵과의 응전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행을 지쳐있는 상태에서 우연하라도 운 좋게 승리해보자는 막연한 기대로 보아서는 곤란할 것 같다. 그보다는, 비록 제일 피곤한 상태이지만 정신의 집중이 생겼을 때, 어떤 식이든 敵과의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敵(-)>의 분석

1)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서의 敵

먼저 <敵(-)>이라는 시의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는 무슨 敵이든 敵을 갖고 있다
- ② 敵에는 가벼운 敵도 무거운 敵도 없다
- ③ 지금의 敵이 제일 무거운 것같고 무서울 것같지만
- ④ 이 敵이 없으면 또 다른 敵 - 來日
- ⑤ 來日의 敵은 오늘의 敵보다 弱할지 몰라도
- ⑥ 오늘의 敵도 來日의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 ⑦ 오늘의 敵도 來日의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 ⑧ 오늘의 敵으로 來日의 敵을 쫓으면 되고
- ⑨ 來日의 敵으로 오늘의 敵을 쫓을 수도 있다
- ⑩ 이래서 우리들은 태평으로 지낸다

시 전문을 살펴보아도 敵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곳은 없다. 단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지칭으로서의 ‘敵’이라는 명명만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敵이라고 지칭되는 대상은 그 대상을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립되는 존재인 것

이다. 따라서 시 전문을 통해 敵의 정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적을 대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살피게 된다면 대립적인 존재로서 敵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①의 ‘우리는 무슨 敵이든 敵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을 보면, 그때의 敵은 단일한 개념의 敵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먼저 敵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주체는 단일인으로서의 개인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敵에 대해서는 ‘무슨 敵이든’이라는 한정적인 관형어구가 붙어있다. 이미 ‘우리는 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분명 敵이라는 대립존재가 있다는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무슨 敵이든’이라는 말은 敵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단일한 유형이 아니라는 또하나의 사실을 드러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①에서 敵은 화자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아니며, 또한 그 적을 인식하는 사람에 따라서 적의 존재 양상이 다르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객관적 사물 혹은 세계의 인과적 관계로 설명되는 기계적인 반영이 아니며, 세계의 비전이 아니라, 세계 속에 사는 주체로서의 인간화의 표현¹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적을 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파악하여 그 대립적인 의미에서의 적을 파악해보려는 시도는 다시 난관에 처하게 된다. 적을 대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이 아닌 ‘우리’이기 때문에, 敵을 인식하는 각각의 주체에 대한 파악도 광범위해 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상호주관적, 혹은 공동주관적 의식¹⁶⁾과 연관해 해명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는 상호주관적 주체로서의 자아와 동일한 존재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②에서는 敵의 정체를 관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敵에는 가벼운 敵도 무거운 敵도 없다

15) 박이문, 『현상학』, 고려원, 1992, 117면.

16) “공동의 환경세계에 속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정립한, ‘우리’에게 공동으로 타당한 하나의 세계를 갖는다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공동의 물질적 자연에 관한 공동주관적 의식을 하부층으로 하는, 하나의 세계에 관한 공동주관적 의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각도, 감정, 가치평가, 행위도의 사소통에 의해 공동체화(共同體化)되는 이상, 개별적인 주체의 모든 의식은 다 공동주관적 의식이 될 수 있다.” (이길우, 『현상학적 정신이론』,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6, 218면.)

이 문장은 ①과는 달리 ‘없다’는 서술어로 끝나고 있다. 하지만 ①에서 말했던 적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적에는’이라는 말에는 적이 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없다’라는 말이 한정되는 범위는 적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다만 적의 속성 내지는 種差인 것이다. 그러한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 보자면 敵은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적의 존재에 대해서는 속성 이외의 아무런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아직 막막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벼운’, ‘무거운’이라는 말과 ‘없다’는 말의 대립이 눈에 띈다. 만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미세한 만큼이라도 제 무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무게에 대해서 화자는 언거푸 두 번의 부정을 하고 있다.

가벼운 적이 없는데 무거운 적이 없다는 것은 일견 모순된 말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은 지극히 논리적인 인식에서 오고 있다. 무게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제시된 상태에서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측정은 수치로써 파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드러나는 무게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서 파악된 것이 아니다. 즉, ‘가볍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없고, ‘무겁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없는 것이다. 만일 어떤 식으로든 기준이 있었다면 가볍다, 혹은 무겁다라는 발언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가볍고 무겁고의 판단은 일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닌 상대적인 것이다. ①에서 보았듯 이미 敵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적이다. 그리고 적을 인식하고 있는 주체도 그 적의 수만큼이나 여럿이다. 그렇기 때문에 2행은 다수의 적에 대한 인식의 상대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질량에 관계된 형용사를 사용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표현은 일상의 경험을 제어하던 합리적인 맥락이 부서진 사회의 단편과 通語되지 않는 의식의 疏隔¹⁷⁾을 보여준다. 자신에 대립되는 존재로서의 敵이 존재한다고 하면 상대적이긴 하더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 가벼운 적도 무거운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敵을 하나의 실체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②에 와서 敵은 관념적인 존재로 좀더 한정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17) 이은봉, 「김수영 시에 나타난 죽음 연구」, 숭실대 석사논문, 1980, 15면.

③에서는 敵의 실질적인 존재여부를 떠나 관념 속의 敵 개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③ 지금의 敵이 제일 무거운 것같고 무서울 것같지만

이 행은 敵이 실제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거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것같고’라는 수식은 敵이 무겁거나 무섭다는 실제의 사실보다는 敵을 대하고 있는 주관적 인식상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지금’이라는 시간적 한정은 인식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과거나 미래의 인식은 지금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제 존재로서의 적과 그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과 ‘무서운’에서 보이는 모음구조 ‘ㄴ, ㄹ, ㅍ’의 반복은 무겁다는 인식의 느낌을 한층 더해 주면서 현재의 인식이 ‘제일’ 강렬하다는 것을 음성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인식의 문제로서의 敵

④에서는 적의 관념이 극대화되어 敵이 관념적 존재라는 사실에까지 이른다.

④ 이 敵이 없으면 또 다른 敵 - 來日

그런데, 앞의 행에서는 적이 있다는 말을 해놓고, 그 있는 적이 없다는 가정을 하는 것은 문맥의 연결이 다소 애매하다. 하지만, 있던 적을 없다고 가정하게 되는 데에는 시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승훈은 ‘敵’에서 보이는 시어의 애매성의 유형을 상호갈등을 일으키는 다양한 암시를 내포한 진술¹⁸⁾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그러한 애매함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다.

문장의 구조를 따라 敵은 ‘이 敵 / 또 다른 敵’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적=내일’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敵이라는 것은 지금과 내일이라는 시간적 개념에서 파악되며 ‘내일’이라는 시간개념 자체를 敵과 동일시 함으로 인해 敵의 존재는 실제 차원이 아닌 인식 차원에서 파악될 수밖에 없는 관념적인 것이 된다. 물론, 구지 연결부호 ‘:’를 동격으로 처리하지 않고 ‘來日’이라는 단어의 뒤에 ‘의

18) 이승훈, 『시론』, 고려원, 102면.

적’이라는 어휘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행은 ‘오늘의 적이 있다, 오늘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일의 적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도 敵의 관념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의 첫행에서부터 화자는 어떤 적이든 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적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敵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한 일은 정신 속에서나 가능한 법이다. 현상학적 주장에 의하면, 만일(관계 내의)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관계(인과관계)는 탈락되지만, 지향적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¹⁹⁾고 한다. 따라서 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정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생각 속에 지향의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말이 된다. 敵이 외부세계에 가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념 속에 자리한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외부의 경험을 시발로 하고는 있지만, 관념을 형성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식 내부의 인식 작용이다. 의미는 대상에게가 아니라, 전적으로 지향에 의존한다²⁰⁾는 말이다. 인간은 누구나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적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고, 생각이 없다면 적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은 누구나 적을 갖고 있고, 인식에 따라서 그것을 느낄 수도 못 느낄 수도 있다. 결국 적의 관념성을 화두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화자는 처음부터 ‘나’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실제로 모든 실존의 경험은 체계화를 기반으로 하는 논리적 사유가 인간경험의 구체적 사실들을 온전히 해명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체계적인 이해는 현실경험을 추상화한 결과로 얻어지는²¹⁾ 것이며, 김수영이 생각하는 敵이라는 것도 그러한 관념적인 추상화의 결과인 것이다.

⑤부터 ⑦까지의 언급에 이르게 되면 敵에 대한 인식방법에 관해 말하게 된다.

19) 이길우, 『현상학적 정신이론』,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6, 151면.

20) R. R. 마그리올라, 『현상학과 문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8, 150면.

21) 김종철, 「시적 진리와 시적 성취」, 『김수영 전집』, 97면.

- ⑤ 來日の 敵은 오늘의 敵보다 弱할지 몰라도
- ⑥ 오늘의 敵도 來日の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 ⑦ 오늘의 敵도 來日の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문장 구조를 살펴 본다면, 오늘의 敵은 강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의미 구조를 살펴보면 ‘내일의 적은 오늘의 적보다 약할 수 있다/ 내일의 적은 오늘의 적보다 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늘의 적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내일의 적처럼 약한 것으로 여기면 된다/ 내일의 적이 어떠한지 몰라도 오늘의 적을 내일의 적으로 여기면 된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다. 敵은 관념 속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또, 시간에 따라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敵의 강도에 따른 외적인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敵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된다. ⑥과 ⑦을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한 것도 바로 인식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시인의 배려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⑥, ⑦은 언어의 효과적인 반복으로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한 예비적인 장치이다. 황동규는 김수영 시가 반복을 특징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반복은 분위기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강조를 통해 논리를 뛰어넘기 위해²²⁾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것처럼 이 시에서도 반복은 敵에 대한 관념적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배치되었다. 반복 후에도 말이 끊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을 구분해 놓은 것은 연과 연 사이의 휴지로 생겨나는 호흡의 공백을 통해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3) 현실의 반성

관념화된 적을 가진 우리들은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①을 통해서 敵이라는 것은 실체성을 가진 것이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그 敵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인식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음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1연까지는 단지 그러한 인식의 문제만 드러났지, 敵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의 대응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대응의 문제는 2연에서 밝혀진다.

22) 황동규, 「정직의 공간」, 『김수영전집』, 123면.

2연의 ⑧은 전체 시의 구조와 관련하여 ‘내일의 적은 오늘의 적보다 약할지 몰라도’에 걸리고 있다. 즉, ⑤의 문장은 1연에서 마무리 되지 않고 연이 바뀌어서도 계속되어 ⑨에 와서야 마무리 되는 것이다. 하나의 문장이 중간에 휴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호흡의 여유를 주게 되며, 문장이 길어짐으로 인해 의미가 흐려지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1연의 敵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새롭게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또, 1연에서 이미 敵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를 말했으므로 敵에 대한 대응법은 제시된 듯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대응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게 된다면, 敵에 대한 인식마저도 아무 것도 아니며, 따라서 敵의 존재 여부조차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 쉽다. 다시 말해, 敵이 있든 말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敵의 문제가 사소한 것이 되버리고, 그에 대한 시 자체마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는 敵이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과 그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더불어 강조하기 위해 연을 따로 구분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 ⑧ 오늘의 敵으로 來日의 敵을 쫓으면 되고
- ⑨ 來日의 敵으로 오늘의 敵을 쫓을 수도 있다
- ⑩ 이래서 우리들은 태평으로 지낸다

2연의 구조는 ‘오늘의 적-내일의 적/내일의 적-오늘의 적’으로 1연의 구조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1연에서 드러난 것과는 다소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즉, 단어의 활용면에서 보자면, 1연에서는 오늘의 적을 내일의 적으로 동일시 하라는 말을 하고 있고, 2연에서는 오늘의 적을 내일의 적을 이용하여 쫓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라’는 말과 ‘쫓으라’는 어휘의 의미는 분명 다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단어의 결합이 애매해지는 부분이다. 분명 시어 자체는 일상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이 난해한 것이다. 김수영은 자신의 시어를 평상어라고 말한다.²³⁾

23) 김혜연, 「김수영詩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48면.

24) 서우석, 「김수영: 리듬의 회열」, 『김수영 전집』, 188면.

그런데 용법에서만큼은 그렇지가 않다. 서우석은 김수영의 시를 리듬과 짜운 시라고 평하면서, 그가 무의식중이라도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리듬에 빠져들지 않고 있고 시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식적인 것에 빠져들려 하지 않는 완고한 고집이 있다²⁴⁾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살펴보자면, 어휘의 사용이 달라짐으로 인해 2연의 말은 1연과 의미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해명할 수가 있다. 1연의 “오늘의 적도 내일의 적처럼 생각하면 되고”와 2연의 “오늘의 적으로 내일의 적을 쫓으면 되고”라는 구문을 보면

⑥		⑧	
오늘의 적도	적의	오늘의 적으로	적의
내일의 적처럼	동일화	내일의 적을	수단화
생각하면 되고(인식의 측면)		쫓으면 되고(행동의 측면)	

으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고, 좌변과 우변의 서로 대응되는 말에 의미의 교환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2연의 언급이 형태적으로 1연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의미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단어의 연결이 아님으로 인해서 1연의 ‘오늘의 적을 내일의 적처럼 생각한다’는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1연과 2연의 휴지 다음에 ‘쫓는다’라는 말이 등장함으로 인해, 인식의 문제로 여겨지면서 혼란스러워질 수 있던 敵의 존재가 갑자기 눈에 선명히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으로’라는 도구적 조사와 ‘쫓는다’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인식 차원의 문제를 실제적 행위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리게 됨으로써 敵에 대한 인식을 한층 더 부각시키게 된다. 이러한 의미의 증폭은 다만 인식의 차원에 그칠 수도 있는 관념상의 문제를 실제 행위와 연관지어 부각시키기 위한 교묘한 장치인 것이다.

그 증폭된 의미는 마지막 행에서 통일이 된다. 마지막 행의 ‘이래서 우리들은 태평으로 지낸다’는 말은 바로 앞에 서술된 적에 대한 자세의 결과로 드러난 생활을 말하고 있다. 의식 속에서 의미부여가 이루어진 대상이 다시 생활 세계²⁵⁾속으로 환

25) 훗설은 생활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직관적 영역, 구체적인 실재적 삶의 직관적 세계, 유일하게 실재적인,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경험되고 경험될 수 있는 세계, 우리의 구체적 삶에서 우리에게 항상 실제로 주어지는 세계, 단순한 경험에 주어지는 세계”라고 묘사하고 있다.

26) 한국현상학회,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광사, 68면.

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곳은 바로 우리 의식이 어떤 이론의 매개 없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경험에서 항상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서 경험되는 세계이다.²⁶⁾ 이 문장은 생각하기에 따라 모든 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실적 삶이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가자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증폭된 敵의 의미 전체가 흐지부지 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숨겨져 있다. 마지막 행 이전의 모든 언급은 현재형이다. 그리고, 마지막 행의 ‘지낸다’는 상태 동사 역시 현재형이다. 그런데 ‘이래서’라는 인과 접속사로 인해 앞의 모든 행은 마지막 행의 원인격으로 환원되고 있다. 즉, 1, 2연에 걸쳐 현재, 혹은 미래의 敵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주문했던 것은 현재가 아닌 과거, 혹은 현재완료의 일이 되어버린다. 그 때문에, 앞의 행에서 거론된 ‘敵을 생각하는 것’은 현재 혹은 미래를 향한다짐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행해져 왔고, 또 행해지고 있다는 완료형의 사실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적을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자고 말하는 것은 동어반복이 된다. 또 한 번의 의미 반복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잦은 반복이 줄 수 있는 상투성을 극복하고 있다. 결국 ‘태평’이라는 단어는 단지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상투적인 의미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화자는 自覺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미 굳어있거나 무디어진 생각을 스스로 일깨우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적이 있다고 함은 태평하지 않음을 뜻하는데, 굳이 ‘태평’이란 단어를 사용한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반어적 표현이나 아이러니는 사용은 김수영이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서 그는 모든 기존사실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기정사실은 그의 적이며, 기정사실의 정리도 그의 적²⁷⁾인 것이다. 따라서 ‘태평’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현실을 비아냥거리기 위해, 즉 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는 우리 각각의 개인적 삶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반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7) 김우창, 『예술가의 양심과 자유』, 『김수영 전집』, 199년.

III. 맺음말

〈敵(-)〉이라는 시에서 드러나는 ‘敵’의 상징적 의미는 시의 외연상 확연하게 드러나는 실제적인 대상이 아니다. 敵에 관한 여타의 다른 시에서도 그랬듯이 敵은 우리의 주변 어디에나 있으며, 또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분별이 되지도 않는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敵의 존재에 대해 둔감해져 있는 것이다. 결국 김수영이 말하고 있는 敵은 인식주체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있으면서도 쉽사리 판단내릴 수 없는 일체의 모든 것들에 관한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쉽사리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쉽게 묵과하고 넘어가는 사소한 것들까지 회의하고 반성²⁸⁾하려는 시인의 의식은 일상에 길들여져 있는 소시민의 무반성적인 삶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敵(-)〉은 일체의 만성화되고 습관화된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에 대한 시인의 반성의식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환, 『풍자와 해탈, 혹은 사랑과 죽음』, 민음사, 2000.
 『김수영 전집-詩』, 민음사, 1999.
 김준오 외, 『구조주의』, 고려원, 1992.
 김혜연, 「김수영詩 연구」, 1984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박이문, 『현상학』, 고려원, 1992.
 이길우, 『현상학적 정신이론』,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6.
 이승훈, 『시론』, 고려원, 1979.
 이은봉, 「김수영 시에 나타난 죽음 연구」, 1980년 숭실대 석사논문.
 한국현상학회, 『생활세계의 현상학과 해석학』, 서광사, 1992.
 황동규편,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97.

28) “현상학적 환원에서 의식의 주요한 양상은 반성이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의자를 지각하고 있는 나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지각의 지향적 대상뿐만 아니라, 지각하고 있는 나의 의식작용도 실재적이며, 개별적이고, 스스로 주어진 것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일체의 형이상학적 관여와는 별개로, 단지 반성하고 있는 나의 의식에 대한 현실적 대상들로서만 고려된다.”(수잔 커닝햄, 이종훈, 『언어와 현상학』, 철학과 현실사, 41면)

- 메트로 폰티,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역, 서광사, 1983.
R. R. 마그리올라, 『현상학과 문학』,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8.
수잔 커닝햄, 『언어와 현상학』, 이종훈, 철학과 현실사, 1995.
W. 마르크스, 『현상학』, 이길우, 서광사, 1989.

Abstract

Phenomenological Approach about 'The Enemy' in Soo-Young Kim's Poetry

Kim, Jung-Seok

This thesis is about the meaning of 'The enemy' as an object. I will make use of the phenomenology in study about what the way of poet's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as an subject. Phenomenological approach is the most reasonable to simplify that explanation, because this thesis is undering both epistemological view of poet as an subject and ontological view of 'The enemy' as an object.

And, the follow sentences are why this thesis is on the side of the epistemology than the ontology. For sementic works of poet are not obscurity, the enemy on the poetry is not also apper as a concreat object with identity. But, the enemy as bieng an object preys on the poet's mind without a pause. The enemy is out of existence but it is still in existence. With that the enemy is in connection with the poet's consciousness. The enemy on the condition of none examination makes the meaning clearer with a take it's place in the conscious as an object. If the enemy is presented as the concrete object, it can be exist only as the object for fight.

But, it is difficult to make with the ontology of the enemy, because the meaning of the enemy is under construction and the poet is in the very confusion. And what is made through a study on the enemy as an object is not a universal truth about the enemy. Therefore, we can make it through th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oet and the enemy as an opposite.